

완주·전주 통합 재추진 “완주군민 의사와 반해”

군의회, 심각한 우려 표명

20대 총선에서 전주지역 당선자들(새누리당 정운천, 국민의당 정동영·김광수)이 전주·완주통합 재추진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완주군의회가 최근 전주시 일부 정치권에서 완주·전주 통합논의를 쟁점화 하려는 것에 대해 완주군민의 의사와 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완주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완주군민들은 이미 2013년에

통합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에 대한 거부사를 분명히 했고, 완주군은 인구 10만을 눈앞에 둔 도농복합도시로 자족기능을 갖추고 있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주민들이 갖는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감도 크며, 주민들은 주민의 뜻에 반하는 통합논의로 군민들이 찬반으로 갈려 극심한 감정의 대립과 분열을 야기 시킨 일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고 이로 인한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의회는 “완주군민에게 거부당한 이슈를 쟁점화 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와 감정을 백안시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주민들은 특정한 의도로 여론을 몰아가는 선동의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며 “새로 선출돼 20대 국회에 들어갈 선관들은 순수한 정치적 이슈로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는 유혹에 빠져들지 말고 지역주민을 자극하는 분열과 선동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토론회

진안군의회(의장 이한기)는 11일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례 대표발의자인 김광수 부의장을 비롯하여 축산단체 회장들과, 농업인단체, 수질보전단체 회장, 귀농귀촌협의회장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8일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많은 의견들이 수렴되었으며 이에 따른 찬·반 여론에 더 많은 논의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조례 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14년부터 논의되어 오던 조례 개정안은 기존 가축사육시설이 절대금지구역 또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밖으로 이전할 경우와 증·개축 시 기존

제한거리의 60퍼센트가 경감되고, 기존면적의 150퍼센트 혹은 3,300㎡까지 확장이 가능하나 기존 가축사육시설이 위치한 자연마을 지역 내에서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축산단체나 무진장축협에서는 노후화된 사육시설의 이전 및 증축을 통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현대화를 통해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 2018년 3월 24일까지 분뇨처리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축사에 대해 개선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기간 내에 축산농가들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점에서 찬성하는 의견이다.

그러나, 수질관리단체나 귀농·귀촌인협회·집행부의 입장은 제한거리

축정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가축사육량이 증가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는 용담호자율관리 협약을 이행하는데 부담을 주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축산업에 직접적인 이익을 보지 않는 군민들이나 용담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130만명의 도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더욱 우려가 되는 점은 진안군의 ‘청정진안’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진안의 청정농특산물을 진안군의 브랜드로 성장시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진안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걱정하며 진안군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한기 의장은 “이번 토론회의 고견들을 향후 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여 보다 많은 군민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농작업 대행사업 ‘호응’

트랙터 논갈이·로터리 정지작업 등 신청 폭도

장수군 농기계사업단의 농작업 대행사업이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아 농기계사업단에서 트랙터 논갈이, 로터리 정지작업을 시작으로 이앙작업, 조사료 옥수수 파종작업 및 수확작업 등을 농가가 원하는 곳이면 신청순으로 100% 농작업을 대행해 농업인들의 신청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창인 조사료용 옥수수 파종량 60ha를 대상으로 파종작업을 대행해 축산농가의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 파종작업 농작업 대행을 신청한 농가는 “모든 작업을 사업단에서 대행해 주니까 편리하고 수확물을 가축이 먹기 좋게 작업 해줘서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서정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작업 대행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농기계 조작과 운행미숙에 따른 농기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가의 농기계 구입으로 인해 농가 경영비가 증가하는 농촌현실에서 농업인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곳은 언제든지 작

업을 대행해 주고 농작업 대행사업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장계면과 산서면 등 3개소에 분소를 설치해 퇴비살포기, 원판쟁기, 땅속작물 수확기 등 농기계 70종 414대를 분산 배치해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임대해 주고 있으며 일부 농기계의 경우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어 농업인 소득향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임대 및 농작업 대행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063)351-5398, 351-5399, 353-5398로 연락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크리션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전주매일 전학산업부
063-430-2951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9일부터 11일까지 덕유대야영장 및 구천동 옛길 일원에서 ‘등산보다 재미있는 캠핑교실’을 운영했다.

“저지대 탐방문화 확산을”

덕유산국립공원, ‘등산보다 재미있는 캠핑교실’ 운영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는 국립공원 주간을 맞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덕유대야영장 및 구천동 옛길 일원에서 ‘등산보다 재미있는 캠핑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공원 주간을 맞아 30~40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상정복형 산행에서 벗어나 저지대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여행문화학교 산책’과 공동으로 운영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여유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덕유대야영장 캠핑과 옛길 따라 떠나는 덕유산 옛길 트레킹, 숲속 작은 음악회 등이 진행돼 참가자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다.

윤대원 탐방시설과장은 “등산보다 재미있는 캠핑교실을 통해 건강하고 올바른 캠핑과 슬로우 탐방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덕유산 옛길을 활용한 각종 체험프로그램 진행으로 저지대 탐방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덕유산국립공원은 올해 탐방문화 슬로건인 “문화가 있는 국립공원” 확대와 옛길 탐방로 정착을 위한 “등산보다 재미있는 캠핑교실”을 운영해 자연을 즐기고, 학습하는 체험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산골영화제 준비 ‘척척’

분야별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추진상황보고회가 12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는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 준비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하성용 부군수를 비롯한 실무소장들과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 조지훈 부집행위원장(프로그램), 신동환 영화제 사무국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영화제 일정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분야별 추진상황들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과 함께 하는 영화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 △관광객들의 편의 및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영화제 붐 조성과 집객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들을 나누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 부군수는 “대한민국 유일의 휴양영화제로 명성을 굳혀가고 있는 무주산골영화제가 올해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부터 홍보와 개최까지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발휘해 보자”며 “이 자리를 통해 산골영화제는 무주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간 무주를 예체문화관과 덕유대 야영장 등 무주군 일원 실내의 상영관과 마을로 가는 영화관 등 8곳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올해는 개막작 “2016 필름 판소리 춘향전” 총연출 김태용 감독”을 비롯해 27개국 82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특별블리스



무주군, 방승인 이상벽 초청강연

무주군은 ‘명사·전문가 초청 Happy 365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12일 방승인 이상벽 씨 강연(주관 무주문화원)회가 실시됐다.

무주읍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실시된 이날 강연회의 주제는 “인생 이모저모”로 무주군청 공무원들과 주민 등 2백여 명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상벽 씨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회고하며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청중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아침마당에 출연한 것처럼 편안한 느낌으로 강의를 듣고 웃을 수 있어 큰 활력을 얻었다”며 “365 문화행사를 통해 매달 좋은 분들과 만나는 설렘이 기분 좋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복지관,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심리치료 실시

무주종합복지관(관장 이영재)은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장애인 가족과 함께 하는 “나와 내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초 강사채용과 참여자 모집을 하고 선발과정을 거쳐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으며 총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진행되고 주된 프로그램은 가족음악심리치료이다.

사전 심리검사를 통해 개인 및 가족의 심리에 맞게 개별 치료와 가족치료가 병행되며 평일과 주말을 이용해 공영관람, 1박2일 캠프를 실시 할 예정이다. 현재 자조모임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자 전원 단 1회의 결석도 없이 꾸준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식중독 예방 시점점검

장수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 관련시설에 대한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점검기간 관내 숙박 및接客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또는 무등록(신고)·무표시 원료식품 사용 및 식자재 보관기준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조리실, 창고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숙박시설 관리상태, 종사자 개인위생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성황

제52회 완주군민의 날이 ‘군민의 소리가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12일 군청 문예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군에 따르면, 이날 기념행사에 박성일 군수, 송하진 도지사, 정성모 군의장, 기관단체장, 주민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자매결연 도시 칠곡군 ‘더 스타 크루’ 와 완주군 ‘모악 올림’과의 문화교류 공연을 시작으로 자원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이와 함께 완주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군민에게 수여되는 완주군민대상 수상식도 진행됐다.

7개 분야 수상자인 유순애(문화체육분야), 김인조(나눔봉사분야), 안대성(경제분야), 이상임(효열분야), 문영배(교육분야), 조영호(농림축수산분야) 씨에 대한 시상식이 열려 많은 군민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완주=이종복 기자